

社說

대학인 앞에 놓인 새로운 책무

— 학생의날의 현재적 과제

어떤 기념일을 지키는 것은 그 기념일의 근본을 생각하고 그것이 갖는 오늘의 의미를 되새기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중에서 오늘날의 대학이 지닌 문화적 현실과 사회적 과제, 그리고 연구의 방향을 점검해 보는 것이 학생의 날의 참뜻을 살리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제 대학은 변화의 중심부에 서 있다. 외적상황이 변화를 유도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스스로 변화를 유발시키고 있다. 요컨대 변화와 변화의 대응이 대학이 수행해야 할 최대의 과제라 할 수 있다. 우리와 우리를 둘러싼 주변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우선 80년대와 90년대사이의 상이한 변화를 대학인으로서 민감히 느껴야 하는 것이다. 90년대는 사회구성체로서의 면목이 아니라 대공문화와 신세대론, 환경문제,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논의가 활기를 띠고 있다.

이제 집단적 사고나 행동보다는 자기중심의 사고가 기거하고 더불어 개인중심의 문화풍토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단순히 우리문화의 한 현상으로 볼지, 아니면 세계사적인 전체문화의 변화로 볼지 진정한 학문적 이론과 분석, 가설의 제기가 요구되고 있다.

솔직히 우리는 지난 10여년간만 정치사회의 모순들을 행동적으로 대응해나오던 진지한 학문적 노력을 소홀히 했던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80년대는 대외적투쟁에서 나

를 성과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만큼 대학의 지적평화화를 감내 했던것도 부인할 수 없다. 이제는 내부로 눈을 돌려 연구와 해결방안을 도출해 낼 시점이다.

시대는 바야흐로 교육의 국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의 내용과 방법조차도 바뀌어야 할 전환기에 있다. 컴퓨터는 재래의 교육내용과 방법의 의사까지도 전면 바꾸어 놓을지 모르나, 동시에 컴퓨터는 인간을 컴퓨터로 지배하려 하고 있으며, 인간들은 그 명령안에서만 자유를 허용한다. 더구나 개인의 개별적 존엄성을 보여 주리라 하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오히려 무자비한 획일주의를 강요하고 있다.

이제 시대는 문화의 시대에서 영상과 오디오의 문화로 바뀌고 있다. 발달된 과학은 인간존엄까지 가능하게 했으며, 과학의 윤리문제가 정례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제 과학보다는 의식, 윤리, 도덕의 문제가 조미의 관심사가 되어가고 있는것이다. 프로이트 이후 재확인된 무의식의 역할은 이성과 감성에 대한 우리의 개념조차 바꿀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대충하고 해결해야 할 주체는 개인이고, 그중에서도 대학인의 역할과 책망은 심도 깊다. 우리가 선진국에서 자기의 일을 재검토해 보고, 인류사적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 할것인가를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은, 학생의 날의 현재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교수기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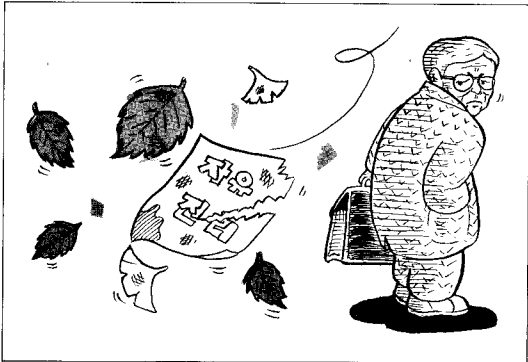
신정현
(정경대교수·정치학)

교수수의 뒷모습

만수(晩秋)에 접어들어 캠퍼스의 풍경은 한눈에 아름다운을 내뿜고 있다. 갈색으로 물들여져 가는 자연스러운 캠퍼스를 한 노교수(老敎授)가 걸고 가고 있다. 그의 머리위로로는 낙엽이 한잎, 두잎 떨어지고 있다. 그의 걷는 뒷 모습은 무엇였던 신록의 계절을 보내고 이제 푸르며 떨어지는 낙엽과도 같이 보인다. 그는 여전히 쾌가미를 들고 무엇인가 깊은 사색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한 평생을 지냈던 것과 같은 모습을 지니고 있다. 아마도 그는 스스로 자연의 섭리에 자취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지는 낙엽에 자신의 삶을 뒤돌아 본 생각도 하지않고 교질스럽게 오직 자기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여정을 걸어 가고 있을 것이다. 자신이 선택한 교수수의 직업에 언제나 충실하려고 노력해 왔으며, 되도록 훌륭한 제자들을 키워 보려는 순수한 교육자의 삶을 살아왔을 것이다. 함

내가 바라는 대학과 대학인



편협한 위계질서·권위주의 학문자유 위협 합리적 제도통해 자율의 원칙 보장돼야

상 자신의 학문영역에서 제도나 타락되지 않는 무한한 진리의 세계를 향해 정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나, 그는 스스로 자연의 섭리에 자취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지는 낙엽에 자신의 삶을 뒤돌아 본 생각도 하지않고 교질스럽게 오직 자기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여정을 걸어 가고 있을 것이다. 자신이 선택한 교수수의 직업에 언제나 충실하려고 노력해 왔으며, 되도록 훌륭한 제자들을 키워 보려는 순수한 교육자의 삶을 살아왔을 것이다. 함

시간을 보낼것을 것이다. 어떤 삶을 열망하는 노교수는 자신이 지금까지 지내온 대학 생활이 생활에 자부심과 보람을 주고 있을 것인지 묻는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의 생애는 분명히 무의미하고 불행한 것이며 그가 평생 생활해 온 대학생활은 아무런 가치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대학은 실로 노교수의 후회없는 지적 학문적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어야 하며 그의 발자취를 따라 후학들이 탐구해 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대학에서의 그러한 생활은 가능한 한 순수하면서 진지하고 고귀스러우면서도 자유롭게 행해져야 한다.

현실과의 괴리감

내가 바라는 대학은 바로 대학 캠퍼스에서 후회없는 일생을 살아왔고 자부할 수 있는 노교수가 쉽게 발견될 수 있는 곳이다. 그리고 낙엽을 밟으면서도 그의 마음이 맑은 학문적 탐구욕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곳이고 그의 결과물 존중될 수 있는 곳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그러한 노교수가 발견될 수 있는가? 만수의 아름다운 숲이어서 학문의 숭고한 삶의 현실이 찾아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

실이 아닌가 싶다. 그 보다는 대학이 세속적 이기성에 의해 자기의 위상을 버려(卑下) 시치고 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아가 그러한 길을 가기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유는 지식인의 주권

대학이 진리를 탐구하는 최고의 전당이라고 한다면 그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대학인을 스스로 자유로운 수 있는 이성적 존재들이어야 한다. 여기에는 위계질서나 권위주의는 불가피한 행태가 아무런 가치도 발휘할 수 없어야 한다.

자유로운 지식인들이 모여 각기 자신들이 선택한 분야에서 새로운 지식을 찾아 그리고 유능한 제자들을 길러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바랄 수 있어야 하는 곳이다. 바로 대학이다. 반면 학살은 교수들의 그러한 삶에서 송곳니 벼슬의 타격을 찾아 낼 수 있어야 한다. 지식인들에게 있어 자유는 주권과도 같은 것이다. 그리고 그런 주권은 하나의 제도로서 그러한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한다. 대학이 특정한 도그마(dogma)나 권위적인 이기주의에 의해 학문의 자유와 권위를 위협할 때 그곳은 이미

대학일 수 없다. 대학이 자유로운 지식인들의 생활공간으로 형성되는 데는 무엇보다도 대학 운영에 있어 분권화(分權化)와 합리적 절차가 제도적으로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대학이 전문화된 지식을 산출하는 곳이란 점으로 말미암아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대학 생활 전반에 걸쳐 자율의 원칙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구상된 스스로가 공동체 생활의 규범을 지키면서 자신들의 자유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대학이어야 한다. 대학에서 그러한 자율의 원칙이 실현되지 못한다면 학과 사회의 어느곳에서 민주주의의 가능해할 수 있을 것인가? 민주주의의 우한대 다수가 지배할 때는 많은 병폐가 뒤따르지만 고귀한 인격과 덕성을 가진 다수가 지배할 때는 인간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최선의 제도이기도 하다. 이의 실현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대학의 존재 의미

대학은 하나의 특수한 사회 제도로서 그 위상을 확립해 나가야 한다. 이것이 대학이 사회 안에서 자취하고 키워져야 하

중요한 것은 자유로운 논의이다

— 총회를 앞둔 교수협의회에 바란다

지난 29일, 고학재단은 총학협의회의 조영식 총장 사표 수리에 관한 질문에 대해 '지난 5일 제단사회의 심의사 회의를 의결하고 29일자자로 발표되었다'고 밝혔다.

같은날 서울캠퍼스에서는 총장 직선제를 위한 집회가 열렸고, 교로에서 "합력 총장직선제", "헌신 3자협의회의"라는 문명카드가 걸렸다.

그리고 교수협의회에서는 오는 3일 총회를 열어 총장직선제에 대한 논의를 가릴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지난 8월 27일 조영식 총장이 사퇴의사를 밝힌지 두달여가 지난 후의 움직임이다. 사퇴는 충격적인 것이었으므로 모두 당혹스러워하는 점은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총장 선출에 대해 우리대학교가 아직도 불확실성의 시기를 겪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큰 원인이 되는 것은 이원인 대학교의 수직적 제단, 교수, 노교, 학생이 자기 자리를 못찾고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데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제단은 왜 총장 사퇴발표가 있었는지 두달 안 지나서 사퇴 수리했고 또 왜 그것을 보통이나 지나서야 발표를 했는가, 또 그동안 교수협의회의는 왜 침묵만을 지켜왔는가, 혹자는 비평과 노교비, 무관심의 3중주라고도 한다.

이런때일수록 불신이나 신뢰를 가지

고, 충금을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성숙된 자세가 아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다. 우리는 명분과 형식에 얽매어있다는 서로 간에 진솔한 대화를 통해 화합과 전진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마침 오는 3일 총장직선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교수총회가 열린다. 우리는 그 회의에서 충만한 보의를 가져 우리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

대학은 단지 지식을 전수하는 곳이 아닌 세상을 보는 안목과 살아가는 지혜, 무엇보다도 믿고 금하지 않는 '뜻'을 가르치는 곳이다. 그리고 참다운 함께 살기를 가르치는 곳이다. 그러기에 가르치는 사람-교수-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다.

교수 사회가 대이성 학내 문제에 있어 방관자가 되지 않기를, 더불어 오는 3일의 교수협의회의 총회가 그러한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라 되기를 바란다.

그 자리에서 적선적 혹은 간선제가 선택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식으로든 총장을 선출하는 것 그 자체는 의의가 없다. 구성원들이 진정한 모습으로 함께 해보려는 것이다. 그 의의를 통해 우리의 정서적 맞는 선출방법을 도출해내고 그를 통해 선출된 총장에게 2년전대로 향한 '정회'의 항해를 맡기자는 것이다.



인재와 기술로 세계에 도전하는 국민기업 - 삼성



7시 출근, 4시 퇴근— 회사에서 획기적으로 도입, 실시하는 조기출퇴근제로 삼성인의 오후가 조금 특별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한강 바깥 오후 4시, 삼성인은 그들의 업무로 정리하고, 퇴근을 앞둔다는 방송을 들으며 한 세 회사만 나섭니다. 일할 때는 집중해서 일하고, 여가시간은 자기개발과 휴식으로 삶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로 실시한 조기출퇴근제. 요즘, 삼성의 전 임직원들은 퇴근후의 여가시간을 활용해 그동안 이렇게 지냈다고 소문이 났던 외국어 공부, 취미생활 등을 통해 알아버리던 자신의 생활을 찾게 되었습니다. 삼성인은 오후 4시가 되면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과감한 제도개혁과 질의주정정정으로 초일류기업을 추구하는 삼성— 삼성은 끝없는 도전과 자기혁신을 통해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젊은이와 만나고 있습니다.

